

#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

자료제공 : 웅진코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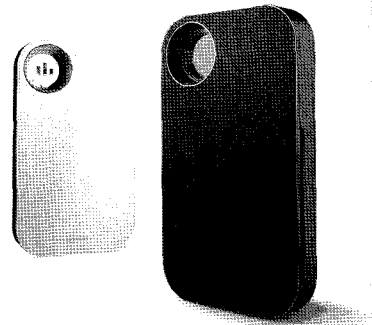
최근 오염된 공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과, 비염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집안 공기나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 가전제품인 가습기나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사용하게 되면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공기청정기 사용법을 알아두어 공기청정기 내에서 세균 번식을 막아 '청정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들이 맘 편히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올바른 공기청정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1.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공간

### \* 시간대별로 사용 장소를 옮겨라!

공기청정기는 어느 한 곳에 붙박이로 설치하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장소를 옮겨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기청정기 1대로 3~4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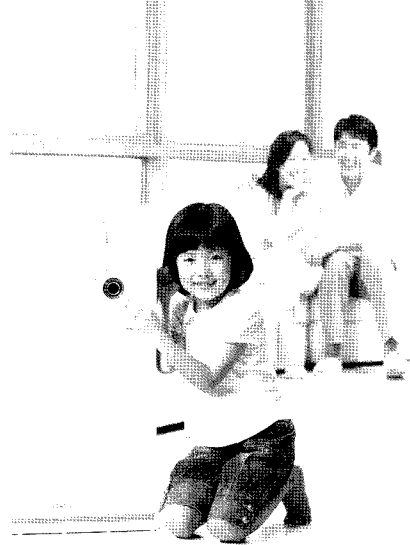
공기청정기는 낮엔 주로 거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공부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으며, 모두가



▲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AP-1008BH)

잠자리에 드는 밤에는 침실에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침 청소 후에는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옮겨가면서 가동해 주면 먼지가 날리는 방안 공기를 말끔하게 처리해 준다.

웅진케어스 공기청정기의 경우 슬립한 디자인과 가벼운 중량으로 이곳 저곳 옮겨가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장소를 옮기며 사용하기에 좋다. 조금 귀찮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약간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잠잘 때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용하자**

밤에는 공기청정기를 저음운전으로 작동시켜줘야 쾌적하고 편안한 수면 분위기를 유지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잠잘 때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겠다고, 공기청정기를 너무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공기청정기의 풍속이 그리 강하지 않아 잠들기 전에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겠지만, 잠이 들면 한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잠자는 위치에서 공기청정기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2. 올바른 공기청정기 사용 위치**

**\* 담배연기를 없앨 때에는 높은 위치에서 사용하자**

담배연기는 수직으로 상승하므로 벽걸이 또는 높은 위치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담배 연기 외에도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는 바닥에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작은 움직임에도 금방 떠올라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급적 허리 높이에 맞춰두어야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흡입구는 가전제품 쪽을 향하게 놓자**

미세먼지는 TV 등 전기가 흐르는 전자제품이나 그 주위에 가장 많다고 한다. 몸 속에서 누적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흡입구를 TV 등 전자제품 쪽으로 향하게 놓아두면 미세먼지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 본체 근처에 공기청정기를 놓고 사용해주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먼지 또한 제거할 수 있다.

**\* 먼지나 꽃가루를 제거할 때는 바닥에서 사용하자**

먼지나 꽃가루 등은 천천히 낙하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황사철이나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에는 공기청정기를 낮은 위치에 설치해 하루 종일 작동하는 것이 좋다.

**3. 공기청정기 관리**

**\* 필터청소와 교체는 필수!**

공기청정기의 필터교체와 청소를 게으르게 하면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필터청소와 관리를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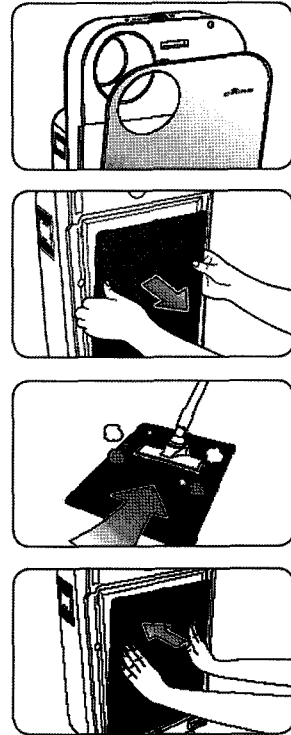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일반적으로 프리필터, 기능성필터, 해파필터, 탈취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리필터는 2주에 한번씩 수세척을 해주어야 한다.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망 필터인 프리필터는 깨끗한 물로 물 세척을 하고, 심하게 더러워진 경우 중성세제를 사용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시키면 된다.

기능성필터나 해파필터, 탈취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주기에 따라 필터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제품이다. 이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의 내부를 함께 청소해 주는 것이 공기청정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필터교체와 청소를 게으르게 한다면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니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후에는 꼭! 필터 청소와 관리를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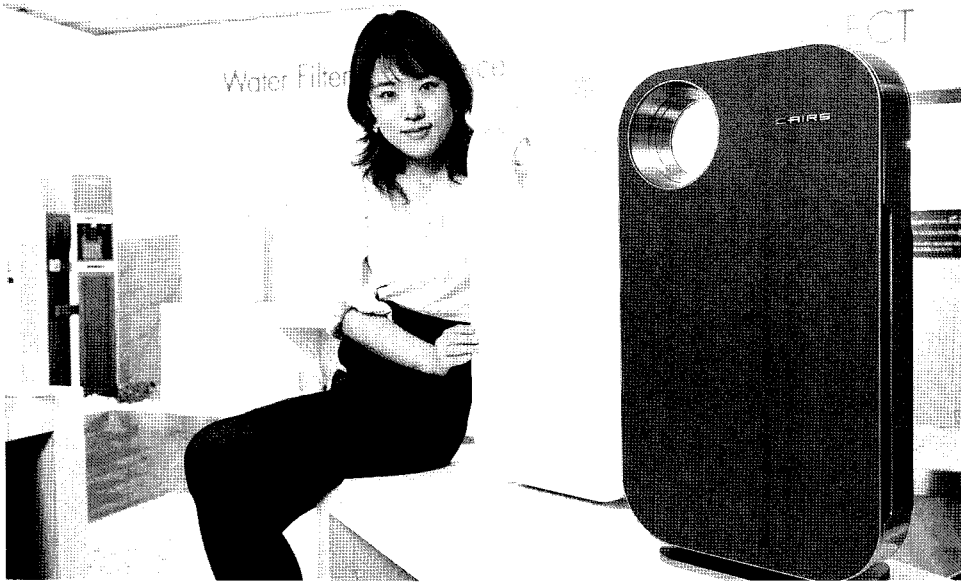
**\* 오염감지센서를 자주 청소하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에는 오염도 감지센서와 자동운전 모드가 있다. 공기청정기를 자동운전 모드로 두면 오염도 감지센서가 감지한 오염도에 따라 청정기 풍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가동이 된다.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을 경우 강하게 운전되어 빠른 시간에 공기를 정화하게 되며, 반대로 실내 공기가 청정할 경우에는 약하게 운전되어 소음이 줄어들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 감지센서 표면은 먼봉이나 부드러운 형질로 자주 닦아 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 센서의 불필요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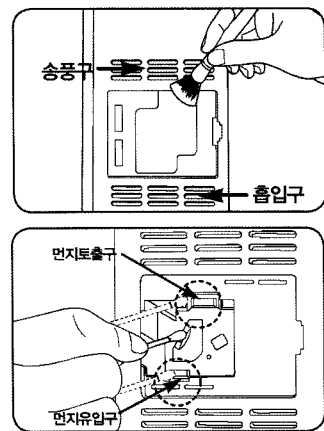
▲ 필터교체 방법(예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기청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중에 필터 관리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번거로운 필터 관리 방법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많은 브랜드에서 좀 더 편리한 필터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웅진케어스의 경우 필터 서비스 전문 코다가 2달에 한번 공기청정기 필터를 간간하게 관리해 주는 하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전문제품관리인인 코다가 주기적으로 집에 방문하여 공기청정기의 작동을 체크하고, 프리필터를 세척해주고, 부직포 교체 및 필터교체를 해 주는 등의 맞춤 관리 서비스를 해주어 더욱 편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웅진 케어스는 편리한 필터 청소뿐 아니라 최근에 '항바이러스 필터'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추출물을 이용하여 유해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신종플루 위험군인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찾고 있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정화'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세심한 관리가 생명이다. 수명이 다된 필터는 빨리 갈아주고, 청정기 내부도 자주 청소해주며 사용해야 제품의 성능을 100%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관리하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 오염감지센스 청소법(예시)